

# 이나영 “인간적인 것들에 강하게 끌려”

웨이브 오리지널 ‘박하경 여행기’로 복귀  
“더하지 않은 담백함에 끌려 단번에 결정”  
고교 국어교사 박하경의 당일치기 여행



과연 배우 이나영(44)은 비인간적이었다.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다. 그의 외모는 분명 일상에서 거의 마주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나영은 같은 종(種)이 맞나 싶은 그런 외양을 하고 있었다. 25년 가까이 연예계에 있었지만, 알려진 게 많지 않은 그의 독특한 활동 방식도 분명 이런 생경함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배우 원빈과 결혼했다는 것, 꾸준히 연기하고 있지만 작품수는 많지 않다는 것 정도가 대중이 그에 관해 아는 정보다. 이렇다 할 논란이나 스캔들도 없었다.

그런 이나영이 최근 웨이브 오리지널 시리즈 ‘박하경 여행기’로 돌아왔다.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 이후 4년만의 새 작품. 비인간적인데다가 많이 가려져 있는 이 배우는 그러나 보기와는 달리 인간적인 것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전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 인간. 어떤 걸 생각하더라도 결국 이 주제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보니 이종필 감독이 연출한 ‘박하경 여행기’는 현실에는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이야기를 담은 장르물에 집중하는 여는 온라인스트리밍 플랫폼(OTT) 영화·드라마와 달리 지극히 평범하고 인간적인 일상을 그린다. “저랑 얘기해보기 전에는 잘 모르시는데, 저 사실 엄청 평범하고 별 거 없어요.”

‘박하경 여행기’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 박하경(이나영)이 매주 토요일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여

행이라고 하면 일상에서 분리된 특별한 사건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이 작품엔 그런 게 없다. 박하경은 해남·부산·경주 같은 잘 알려진 국내 관광지에서 특별한 게 없는 사람들과 만나고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 한다. 이 답답한 여행기가 에피소드 8개에 담겨 있다. 이나영은 이같은 분위기가 마음에 속 들어 시나리오를 받아보자마자 출연을 결정했다. “저한테는 완벽했어요.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뭔가 더하지 않은 그 담백함이 좋았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미드폼(mid-form) 드라마라는 점도 맘에 들었고요.”

연기 키워드는 역시나 자연스러움이었다. 매주 여행을 떠나는 여성이 주인공인 드라마라고 하면 그에게 분명 숨겨진 사연이나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박하경에게는 그런 게 없다. 박하경은 이나영이 말한 인간적이고 평범한, 보통의 여성이다. 캐릭터가 없는 캐릭터라고 해야 하나. 이런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 이나영은 연기를 하기 보다는 이 작품이 보여주는 상황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려고 했다. “멍 때리는 것만 잘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웃음) 멍 때릴 때의 표정조차도 인위적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운 멍 때리기인 거죠. 딱 맞아 떨어지는 것보다는 어딘가 어정쩡하고 뭔가 어색한 그런 상황들이 더 어울리는 작품이랄까요.”

이나영이 말한 그 자연스러운 어색함과 어정쩡함 덕분인지 ‘박하경 여행기’는 보는

이를 편하게 해준다. 박장대소 하게 하지는 않지만 미소 짓게 하고, 눈물이 뚝뚝 흐르는 경우는 없어도 가슴이 순간 저릿해질 때가 있다. 당장에 여행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낭만적이진 않아도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 같아 위로가 된다. “전 동네 친구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상을 보내요. 사실 그런 게 큰 위안이 돼주잖아요. ‘박하경 여행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진솔한 대화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는 것 같아요.”

이처럼 연기하지 않는 듯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하자 이나영은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 울컥하고 올라오는 경험을 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묵인수행을 하는 여성을 연기한 가수 선우정아와 조용히 마주보는 장면을 연기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고 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제자로 나온 배우 한예리와 연기할 때도 그가 특정 대사를 하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자꾸만 떨어졌다고 했다. 한예리 역시 함께 눈물 흘렸다. 물론 이 두 사례 모두 실제로 사용된 장면은 눈물이 없는 것들이었다. 다만 이나영은 그때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 상황을 “인간에 대한 애뜻함 때문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이 통했나봐요. 그렇게 통하니까 정해지지 않은 감정이 생겨난 거겠죠.”

이나영은 만약 20~30대 때 ‘박하경 여행기’를 만났다면 이렇게 연기하지 못했을 거라고 했다. 지금만큼 나이가 차지 않았을 때 박하경을 연기했다면, 그가 언급했던 것처럼 멍 때리는 연기에든 무언가를 넣으려고 고민했을 거라는 얘기였다. 어떤 걸 생각해도 사람이라는 주제로 돌아오기를 반복한 끝에 나온 연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는 특하고 놓는 연기를 좋아해요. 그런 연기를 하고 싶고 그런 연기를 하는 분들을 닮고 싶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 ‘박하경 여행기’를 만났 거죠.”

2018년 ‘뷰티풀 데이즈’ 이후 내놓은 새 영화는 아직 없고, ‘박하경 여행기’는 4년만에 출연한 드라마다. 그의 작품 활동 주기는 짧으면 2~3년, 길면 4년이 되기도 한다. 그의 이런 방식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의 팬들은 여전히 이나영을 더 많은 영화·드라마에서 보고 싶어 한다. 그는 “자연스럽게 인연이 닿는 작품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제안 들어오는 작품들을 꾸준히 읽어가고 있어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쫓히는 걸 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자연스럽게 결정할까요. 물론 ‘박하경 여행기’ 같은 스타일의 작품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번에 좀 떨어졌으니까, 또 꼭 채워서 연기할 수도 있겠죠.”

## ‘김사부3’ 자체 최고 16.8%로 종영



한석규 주연의 SBS TV 금토극 ‘남만닥터 김사부 시즌 3’이 자체 최고 시청률로 종영했다. 1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남만닥터 김사부3’ 최종회는

전국 기준 16.8%의 시청률로 종영했다. 시즌 3는 1회 12.7%의 시청률로 시작해 12~14%대의 시청률을 유지하다 16회(최종회)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앞서 방영된 시즌 1, 시즌2의 자체 최고 시청률이 각각 27.6%, 27.1%였던 것에 비하면 10% 이상 하락한 수치다.

이날 최종회에는 김사부(한석규 분)이 밀그립을 그린 중증외상센터에서 꿈을 키워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서우진(안효섭 분)은 강동주(유연석 분)의 외상센터 레벨 1의 계획에 설렘을 느끼며 센터에 합류했다. 또 서우진은 차은재(이성경 분)에게 프리포즈하며 행복한 엔딩을 맞았다.

한편 방송말미 에필로그에서 시즌 1에 출연했던 윤서정(서현진 분)이 귀국해 돌담병원에 돌아오는 뒷모습이 담기면서 시즌 4 제작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뉴시스

## 임시완·강하늘·박성훈, ‘오징어게임2’ 합류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임시완, 강하늘 등 새로운 배우들이 대거 합류한다.

넷플릭스는 17일 오후 5시30분(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글로벌 팬 이벤트 투둠(Tudum)에서 공개한 영상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임시완은 넷플릭스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와 드라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등 선과 악을 넘나드는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호평을 듣고 있다. 강하늘은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과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통해 인기를 누렸다.

또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인상깊은 캐릭터를 소화했던 박성훈과 넷플릭스 영화 ‘야차’와 드라마 ‘치열함’에서 존재감을 입증한 양동근도 캐스팅됐다. 새로운 배우들의 캐릭터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즌 2의 주축 배우들도 대거 돌아온다. ‘오징어 게임’ 시즌1로 제7회 프라임타임에 미상 남우주연상을 거머쥔 이정재는 성기훈 역을 다시 맡는다. 또 시즌1에서 극을 압도했던 프런티어 역의 이병헌, 형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의문의 서바이벌에 뛰어 들었던 황준호 역의 위하준 역시 합류했다. 딱지를 들고 참가자들을 의문의 서바이벌로 초대했던 미스터리한 딱지남 공유도 시즌2 출연을 예고했다.

앞서 작년 6월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은 “더욱 새로운 게임,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만



나넷했습니다”며 시즌2 제작 확정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즌2 촬영은 하반기에 돌입한다.

## 구혜선, 前소속사와 유튜브 영상 수익 분쟁…1심서 패소

### 전속계약 당시 유튜브 영상 출연 구두약정

배우 구혜선씨가 자신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유튜브 영상 제작 관련 수익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지난 15일 구씨가 HB엔터테인먼트(HB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씨는 2018년 11월께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영상에 출연하기로 하고, 영상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50%를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구씨가 출연하는 영상이 제작됐고, 비슷한 시기 HB엔터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순차적으로 게시됐다.

이후 구씨는 HB엔터 소속 연예인이었던 안재현씨와 이훈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HB엔터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중재 신청을 했다.

HB엔터 측도 구씨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라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비용 및 법률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중재를 신청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20년 3월 구씨와 HB엔터 사이의 전속계약 해지 판정과 함께 전속계

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구씨가 HB엔터에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돈을 지급한 구씨는 중재판정으로 앞서 체결된 구두약정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또 HB엔터가 약정으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인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HB엔터 측은 구씨 측이 구두약정을 파기하거나 무효화할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고, 해당 구두약정은 전속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1심도 구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두약정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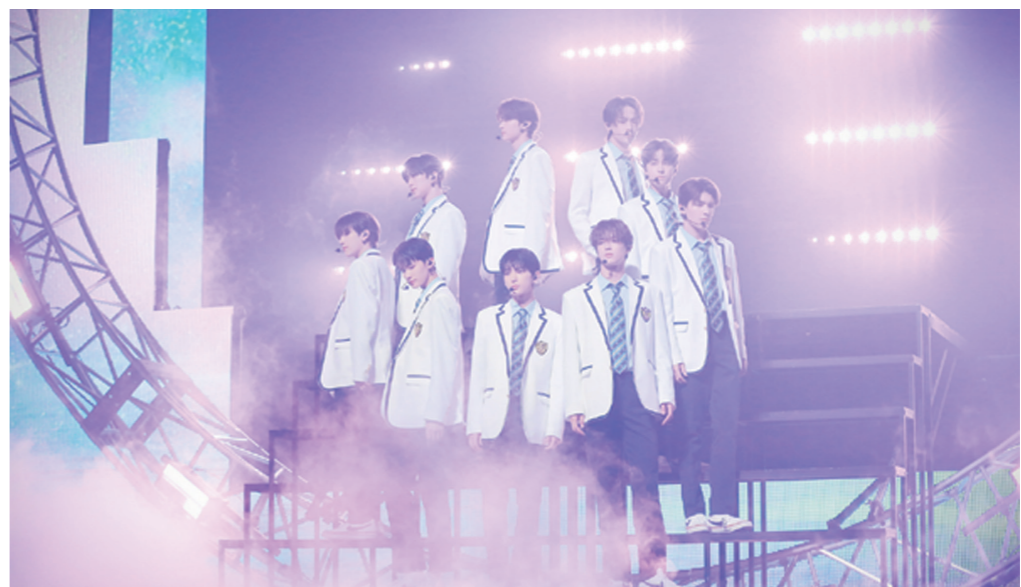
재판부는 “(구씨 측이) 이 사건 구두약정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요건이 충족돼 ‘구두약정’의 소급적 무효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고(구씨)가 단순한 출연자의 역할을 넘어 이 사건 영상 제작 과정에서 기획, 연출 등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유튜브 채널의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면



피고(HB엔터)가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획과 책임을 전적으로 담당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등 실연자로서의 저작권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엔팀, 日 첫 팬미팅 투어 성료…韓 활동 병행

그들 ‘엔팀(&TEAM)’이 첫 팬미팅 투어를 성료했다.

17일 하이브 레이블즈 재팬에 따르면, 엔팀은 전날 일본 요코하마를 마지막으로 3개 도시 7회에 걸친 팬미팅 투어 ‘2023 루네 마레 츠키나미(LUNÉ MARE : 月波)’의 막을 내렸다.

이번 팬미팅 투어는 매 회차 관객들로 가득 차 이들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고 하이브 레이블즈 재팬이 전했다. 특히 멤버들은 ‘하이브 표 캅군’가 돋보이는 댄스를 선보였다.

팬미팅의 마지막은 미니 2집 수록곡 ‘츠키가 기레이테스네(月が綺麗ですね)’가 장식했다. 멤버들은 투어를 마치고 “이번 공연을 통해 루네(LUNÉ·팬덤명) 분들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됐다. 여러분과 눈을 마주

치고 꿈같은 시간을 보내서 정말 행복했다”고 입을 모았다.

“팬분들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팬미팅 투어는 오늘로 끝나지만 미니 2집 활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엔팀은 미니 2집 ‘퍼스트 하울링 : 위(First Howling : WE)’로 15일 자일본 오리콘 일간 앨범 랭킹 1위를 차지했다. 타이틀곡 ‘파이어워크(FIREWORK)’는 15일 자 라인뮤직 일간 송 차트 3위에 올랐다.

일본 기반의 팀이지만 한국 활동도 적극 병행한다.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열린 ‘위버스콘 페스티벌’에 출연했던 이들은 오는 22일 엠넷 ‘엠카운트다운’, 23일 KBS 2TV ‘뮤직뱅크’에 출연한다.